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60-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년 종교인식조사:

주요 종교 호감도와 종교 영향력, 효능감

2025. 12. 17.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불교(54.4점), 천주교(52.7점)는 호감도 보통 이상… 개신교 호감도는 34.7점 불교, 천주교 호감도는 지난해 대비 상승한 반면, 개신교 호감도는 소폭 하락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의 4대 종단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호감도는 감정도 방식으로 측정한다. 각각의 종교에 대해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면 100점,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면 50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올해 조사는 2025년 11월 21일 ~ 26일 진행하였으며, 표본수를 기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 조사의 해상도를 높였다.

2025년 종교 호감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슬람교 순으로 호감도가 높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의 호감도는 지난해 대비 상승한 반면 개신교 호감도는 소폭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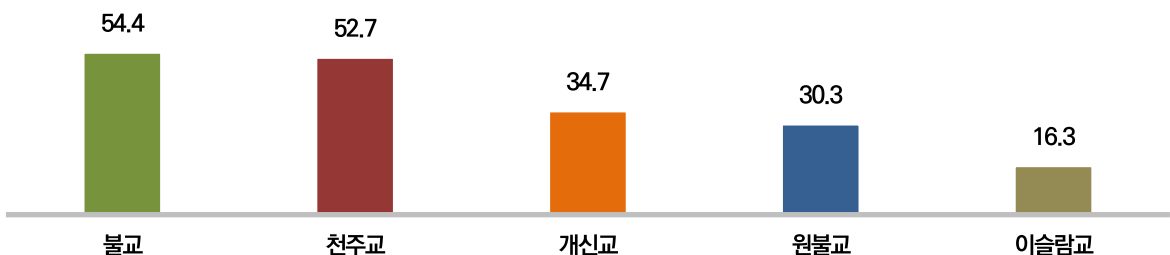
불교 호감도는 54.4점으로 지난해 대비 3.1점 상승했다. 종교별 호감도를 측정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으며, 주요 종교 중에서도 호감도가 가장 높다. 불교 호감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51점 이상)은 전체의 49%이며, 특히 76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호감도를 보인 사람은 전체의 26%이다. 반면 24점 이하로 매우 호감도가 낮은 사람은 전체의 16%이다.

천주교 호감도는 52.7점으로 불교와 함께 보통 이상이다. 지난해 대비 호감도가 4.1점 높아졌고, 불교와 마찬가지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호감도이다. 천주교 호감도가 보통을 넘는 사람은 전체의 46%이며, 23%는 76점 이상의 매우 긍정적인 호감도를 보인다. 반면 24점 이하로 매우 부정적인 사람은 전체의 17%이다.

개신교 호감도는 34.7점으로, 불교 및 천주교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오히려 주요 종교 중 유일하게 호감도가 지난해 대비 소폭(0.9점) 감소해, 지난 2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개신교 호감도가 51점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22%로 불교나 천주교의 절반 수준이며, 76점 이상 매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의 비율도 불교나 천주교보다 낮은 15%이다. 반면 24점 이하의 매우 낮은 호감도를 보인 사람은 전체의 46%로 불교나 천주교 대비 두 배 이상 많다.

불교(54.4점), 천주교(52.7점)는 보통 이상의 호감… 개신교 호감도는 34.7점으로 불교·천주교 대비 낮아
원불교 호감도는 30.3점, 이슬람교 호감도는 16.3점으로 매우 부정적

(단위 : 점)



질문 :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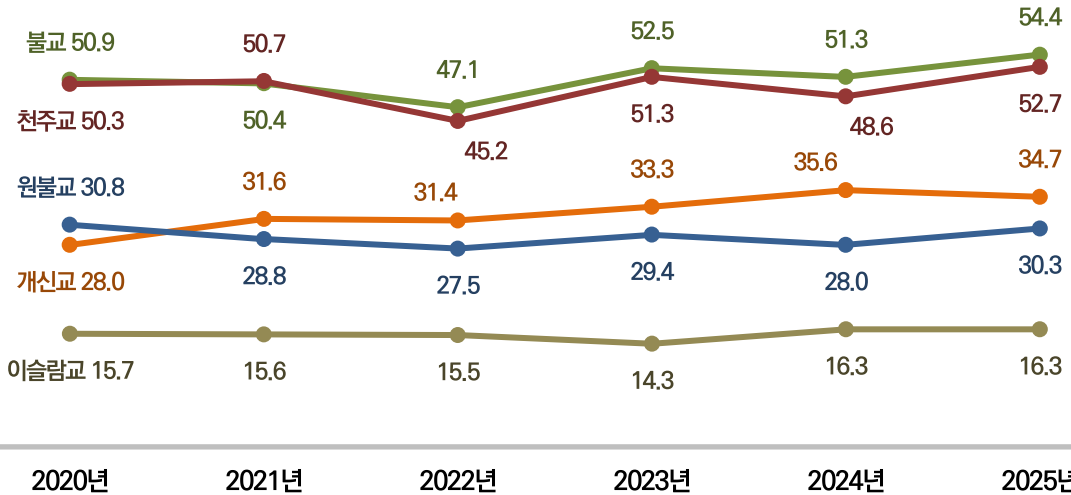
응답자 수 :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원불교 호감도는 30.3점으로 지난해 대비 2.3점 올랐고, 2020년 이후 처음으로 30점을 넘어섰다. 이슬람교 호감도는 16.3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측정 대상 5개 종교 중 호감도가 가장 낮다. 전체 응답자 중 70%가 이슬람교에 대해 24점 이하의 낮은 호감도를 보인다.

**지난해 대비 불교 호감도는 3.1점, 천주교 호감도는 4.1점 상승해 2020년 이후 가장 높아
개신교 호감도는 지난해 대비 0.9점 하락, 불교·천주교와 격차 벌어져**

(단위 : 점)



질문 :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2020년 ~ 2024년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불교 호감도 보통 이상(51점 이상)인 사람은 49%, 천주교는 46%로 지난해 대비 높아
개신교에 대해 24점 이하의 매우 낮은 호감도를 가진 사람은 전체의 46%**

(단위 : %)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응답 비율	부정적			보통 (50점)	긍정적		
	매우 부정적 (0-24점)	약간 부정적 (25-49점)	부정적 (0-49점)		약간 긍정적 (51-75점)	매우 긍정적 (76-100점)	긍정적 (51-100점)
불교	16	9	26	25	23	26	49
천주교	17	10	27	27	22	23	46
개신교	46	12	58	20	7	15	22
원불교	45	12	58	29	9	4	13
이슬람교	70	11	82	15	2	1	3

질문 : 다음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불교 호감도, 세대와 성별, 지역 관계없이 50점 이상 천주교 신자,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50점 이상

불교 호감도는 전 세대에서 50점을 넘었고, 특히 50대(57.6점), 18-29세(56.2점)에서 호감도가 높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8-29세, 30대, 50대에서 호감도가 5점 이상 상승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에서 호감도가 50점을 넘었다. 불교 인구가 많은 부산·울산·경남(57.5점) 및 대구·경북(54.5점) 지역의 호감도가 높고, 강원·제주(57.7점) 지역의 호감도도 높다. 반면 개신교 인구가 많은 광주·전라 지역에서의 호감도는 50.7점으로 다른 지역 대비 다소 낮은 편이다.

불교 신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불교 호감도는 79.2점으로 지난해 대비 6.2점 높다.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평가한 불교 호감도도 지난해 대비 5.8점 오른 55.4점이다. 천주교 신자의 불교 호감도는 지난해 대비 3.2점 하락했지만 55.9점으로 여전히 보통을 넘는다. 유일하게 개신교 신자의 불교 호감도만 33.8점으로 낮다.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불교 호감도가 지난해보다 3.7점 상승한 59.3점으로 가장 높다. 보수층의 호감도는 1.0점 상승해 53.4점이고, 중도층은 3.7점 상승한 52.1점이다. 진보층의 호감도가 다소 높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니며,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해 50점을 넘는다.

천주교 호감도, 70세 이상과 18-29세 간 호감도 차이 커 천주교 신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천주교 호감도는 81.9점으로 매우 높아

천주교 호감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천주교 신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주요 종교 중 가장 높은 50%](#)라는 것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70세 이상(60.8점), 50대(56.9점), 60대(55.0점)의 호감도는 높은 반면, 18-29세의 천주교 호감도는 43.3점으로 50세 이상과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호감도가 50점을 넘고 지역별 차이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 강원·제주(54.7점) 및 서울(54.6점)의 호감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천주교 신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천주교 호감도는 81.9점으로 지난해 대비 2.4점 높다. 불교 신자의 천주교 호감도는 51.0점으로 지난해 대비 5.0점 상승했고,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천주교 호감도 또한 지난해 대비 4.5점 높은 49.4점이다. 개신교 신자가 평가한 천주교 호감도는 45.3점이다. 개신교 신자, 불교 신자,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 간 호감도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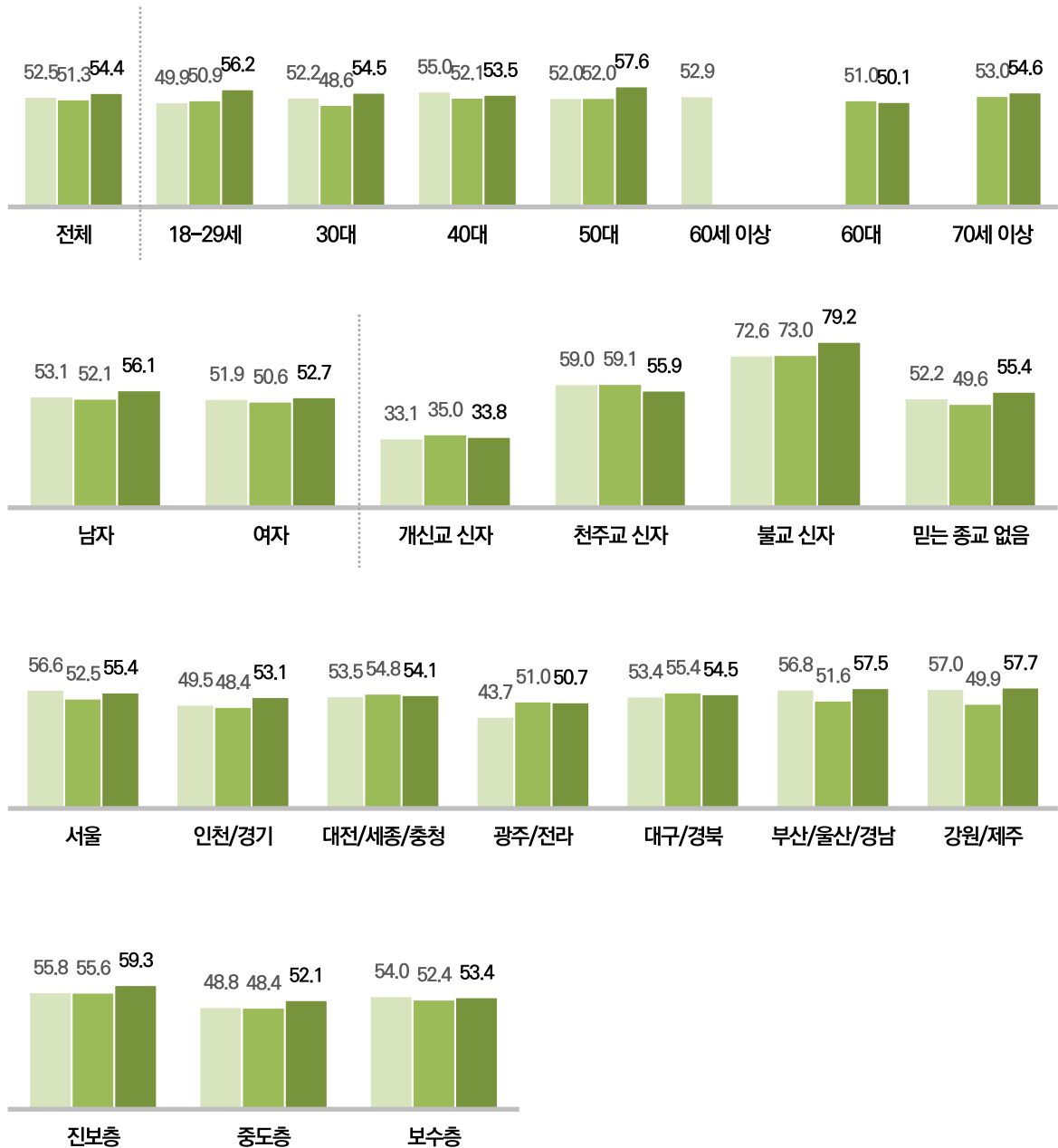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 보수층 모두 천주교 호감도가 50점을 넘으며, 이념성향과 관계없이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불교와 동일하게 진보층의 호감도가 58.1점으로 가장 높고 이는 지난해 대비 2.5점 높아진 결과다. 보수층의 호감도는 3.5점 상승한 51.6점, 중도층의 호감도는 5.2점 상승한 50.9점이다.

불교 호감도, 세대와 성별, 지역 관계없이 50점 이상
천주교 신자,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불교에 대한 호감도는 50점 이상

(단위 : 점)

불교 호감도 변화

■ 2023년 ■ 2024년 ■ 2025년



질문 : 불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비고 : 2024년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

응답자 수 : 2023년, 2024년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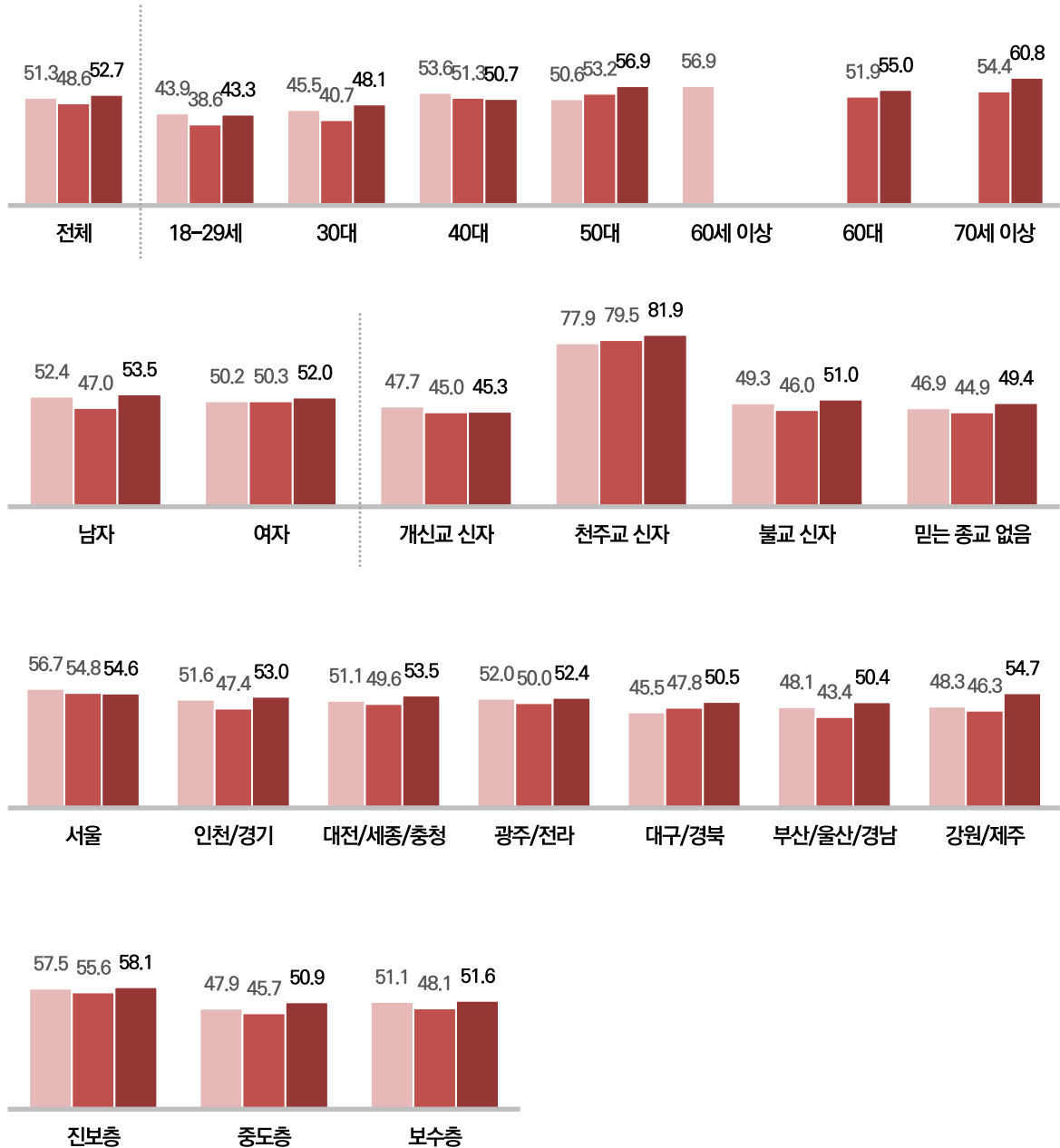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천주교 호감도, 70세 이상(60.8점)과 18-29세(43.3점) 간 호감도 차이 커
천주교 신자 스스로가 평가하는 천주교 호감도는 81.9점으로 매우 높아

(단위: 점)

천주교 호감도 변화

■ 2023년 ■ 2024년 ■ 2025년



질문: 천주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비고: 2024년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

응답자 수: 2023년, 2024년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개신교 호감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40점 이하 천주교, 불교와 달리 보수층의 호감도가 높고, 이념성향에 따른 호감도 격차도 커

개신교 호감도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에서만 호감도가 보통에 근접(49.0점)하고, 60대 이하에서는 호감도가 40점 미만이다. 특히 30대의 개신교 호감도가 26.8점으로 전 세대 중 가장 낮으며, 40대의 호감도는 28.8점으로 지난해 대비 7.0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26.9점)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호감도가 35.0점 내외 수준으로 엇비슷한 가운데, 개신교 신자 비율이 높은 광주·전라 지역에서의 호감도가 38.4점으로 다소 높다.

개신교 신자들이 스스로 평가한 개신교 호감도는 77.2점으로 지난해 대비 5.8점 높다. 반면 천주교와 불교 신자, 그리고 무교인 사람들의 개신교 호감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천주교 신자의 개신교 호감도는 28.0점으로 지난해 대비 7.5점 하락했고, 불교 신자의 개신교 호감도도 지난해보다 2.4점 하락해 22.9점을 기록했다.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의 개신교 호감도도 23.2점에 머무른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의 호감도가 41.5점으로 가장 높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점 높아진 것이다. 중도층의 개신교 호감도는 35.1점으로 지난해(34.7점)와 큰 차이 없다. 반면 진보층의 개신교 호감도는 28.5점으로 지난해 대비 5.8점 하락했다. 불교와 천주교는 진보층의 호감도가 가장 높고 이념성향에 따른 호감도 차이도 7점 내외 수준이다. 반면 개신교는 보수층의 호감도가 가장 높고, 호감도의 이념성향 간 격차도 불교와 천주교 대비 두 배 가량 큰 13.0점이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광훈 목사, 손현보 목사 등이 주도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가 계엄 옹호 및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간 것이, 개신교 호감도의 이념적 분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원불교 호감도는 18-29세 및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이슬람교 호감도는 성별이나 세대 관계없이 모두 20점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

원불교 호감도는 18-29세(36.7점) 및 70세 이상(34.5점)에서 높고,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 반면 40대의 원불교 호감도는 25.4점으로 지난해 대비 3.3점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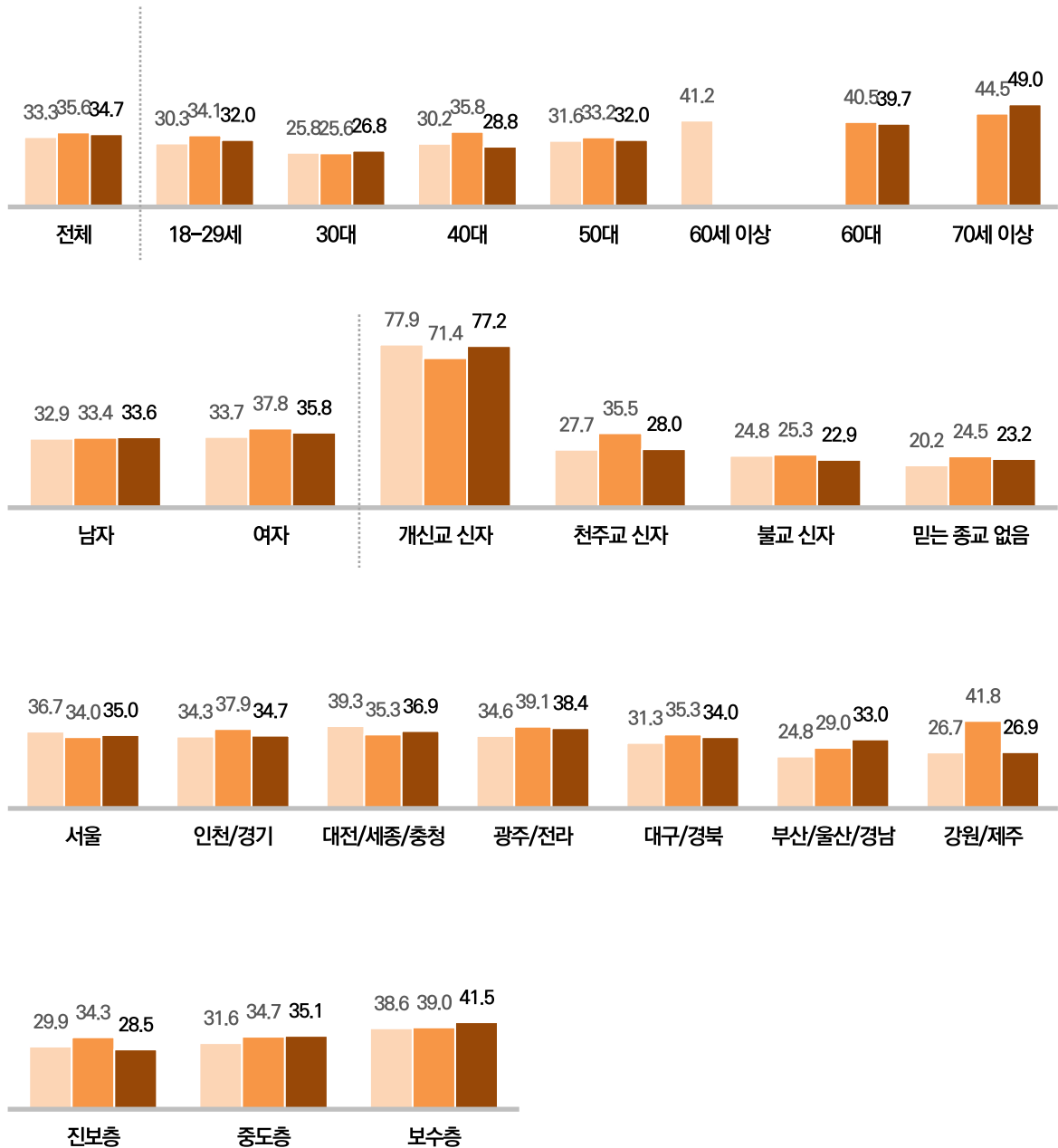
이슬람교 호감도는 성별이나 세대 관계없이 모두 20점 미만으로 호감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성(14.1점)보다는 남성(18.4점)의 호감도가, 18-29세(19.7점) 및 70세 이상(18.9점)의 호감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모두 20점을 넘지는 못한다.

개신교 호감도,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40점 이하
천주교, 불교와 달리 보수층의 호감도가 높고, 이념성향에 따른 호감도 격차도 커

(단위 : 점)

개신교 호감도 변화

2023년 2024년 2025년



질문 : 개신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비고 : 2024년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

응답자 수 : 2023년, 2024년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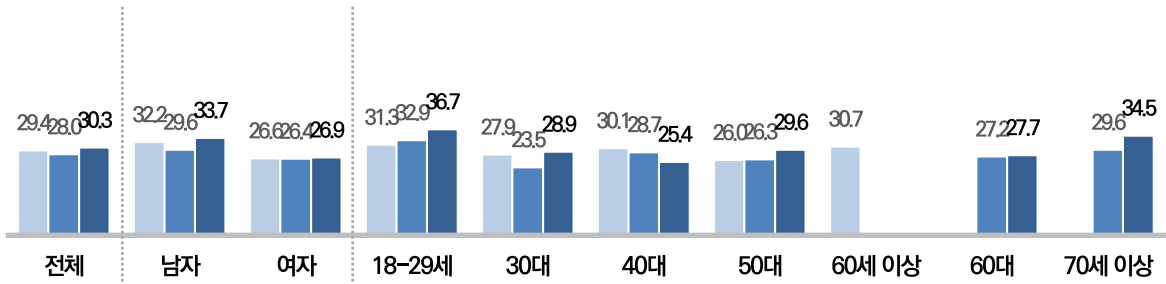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원불교 호감도는 18-29세 및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이슬람교 호감도는 성별이나 세대 관계없이 모두 20점 미만으로 낮은 수준에서 정체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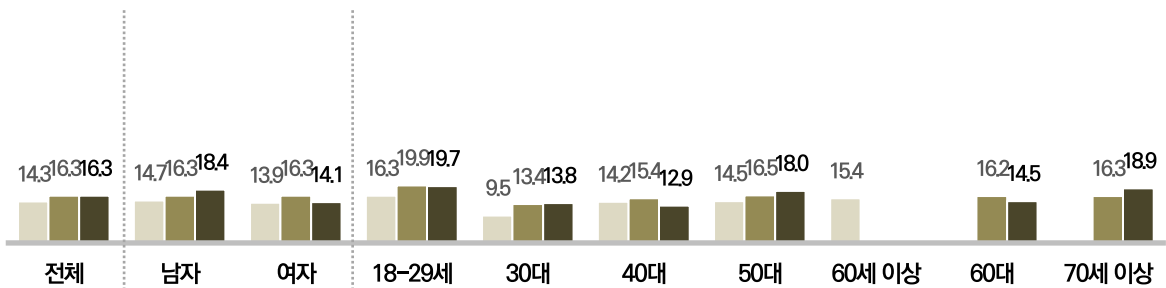
원불교 호감도 변화

2023년 2024년 2025년



이슬람교 호감도 변화

2023년 2024년 2025년



질문: 원불교/이슬람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비고: 2024년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

응답자 수: 2023년, 2024년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3개 종교 모두 호감도 보통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29%, 모두 호감도 낮은 사람은 9%
불교·천주교 호감도는 보통 이상이지만 개신교 호감도는 낮은 사람은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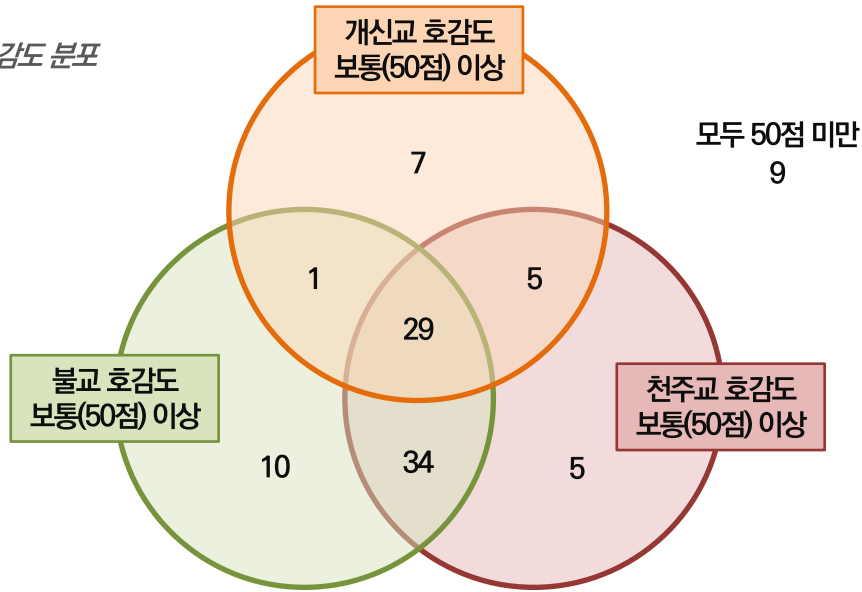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각각에 대한 호감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았다. 3개 종교에 모두 보통(50점) 이상의 호감도를 가진 사람은 전체의 29%이며, 반대로 모두 50점 미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은 전체의 9%이다.

나머지 62%의 사람들은 각 종교에 대한 호불호가 나뉜다. 가장 많은 유형은 '불교·천주교 호감도 보통 이상, 개신교 호감도 보통 미만'인 집단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한다. 성인 3명 중 1명은 불교와 천주교에는 나쁘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개신교에는 부정적인 셈이다. 그 외 불교에만 호감도 보통 이상인 사람은 10%, 개신교에만 호감도 보통 이상인 사람은 7%, 천주교에만 호감도 보통 이상인 사람은 5%이다. 천주교·개신교에는 호감도 보통 이상이지만 불교 호감도는 보통 미만인 사람은 5%이며, 불교·개신교에는 호감도 보통 이상이지만 천주교에는 호감도 보통 미만인 사람은 1%로 소수이다.

3대 종교 모두 호감도 보통 이상인 사람은 전체의 29%, 모두 호감도 낮은 사람은 9%
 불교·천주교 호감도는 보통 이상이지만 개신교 호감도는 낮은 사람은 34%

(단위 : %)

3대 종교 호감도 분포



질문 : 개신교/천주교/불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응답자 수 :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천주교, 불교, 원불교 호감도 간 상관관계, 여전히 .5 내외 수준 유지 개신교 호감도는 다른 종교 호감도 간 상관관계 약해

5개 종교별 호감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상관관계가 다소 약해지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경향성에는 변화가 없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호감도는 서로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 종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면 나머지 두 종교에 대한 호감도도 높고, 낮으면 함께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천주교-불교 간 상관계수는 .482, 천주교-원불교는 .425, 불교-원불교는 .504이다.

개신교 호감도와 다른 종교 호감도 간 상관관계가 낮은 경향성도 이전 연도와 동일하다. 개신교-천주교 간 상관계수는 .077이며 원불교(.093), 이슬람교(.159)와의 상관관계 역시 약하다. 특히 개신교-불교 간 상관계수는 -.182로, 약하지만 음(-)의 관계를 보인다. 개신교 호감도가 높을수록 불교 호감도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인 것이다. 개신교에 대한 평가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교와는 역방향의 관계가 확인된다.

특히 개신교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경향은 올해 더욱 두드러진다. 개신교-천주교 간 상관계수는 지난해 .283에서 .077로, 원불교는 .226에서 .093으로, 이슬람교는 .255에서 .159로 모두 하락했다.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다른 종교들과 더욱 분리되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원불교와 이슬람교 간 상관계수는 .607로, 5개 종교 쌍 중 가장 높다. 두 종교 모두 한국 사회에서 신도수가 적은 소수 종교라는 점에서, 개별 종교에 대한 평가와 함께 비주류 종교에 대한 개방성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낯선 종교에 거부감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들 종교 모두에 높은 호감을 보인 것이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호감도 간 상관관계, 지난해 대비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5 내외 수준 유지
개신교 호감도는 다른 종교 호감도 간 상관관계 약해… 개신교 자체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경향 보여

종교 호감도 별 상관관계 변화	개신교 호감도			천주교 호감도			불교 호감도			원불교 호감도			이슬람교 호감도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23년	'24년	'25년
개신교 호감도	1	1	1												
천주교 호감도	.160**	.283**	.077**	1	1	1									
불교 호감도	-.117**	-.022	-.182**	.549**	.532**	.482**	1	1	1						
원불교 호감도	.119**	.226**	.093**	.513**	.504**	.425**	.563**	.519**	.504**	1	1	1			
이슬람교 호감도	.225**	.255**	.159**	.296**	.385**	.306**	.280**	.347**	.284**	.547**	.657**	.607**	1	1	1

질문: 각 종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비고: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결과.
 유의확률(양측): **p < 0.01; *p < 0.05

응답자 수: 2023년, 2024년 조사는 각 조사별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2023. 11. 24 ~ 27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5년 종교 호감도를 정리하면, 불교와 천주교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상승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개신교 호감도는 소폭 하락하며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개신교에 대한 평가는 다른 종교들과 독립적으로, 때로는 역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개신교는 이념성향에 따른 호감도 차이가 가장 큰데, 올해 조사에서는 진보층의 개신교 호감도가 5.8점 하락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2.5점 상승하는 등 이념에 따른 평가 분화가 확인되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정치적 행보가 이러한 분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원불교는 처음으로 30점대에 진입했고, 이슬람교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된다.

2 종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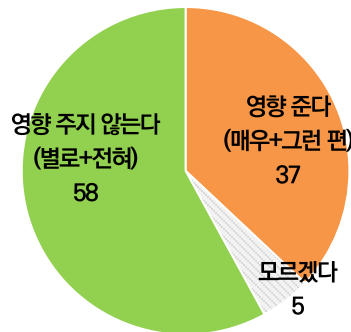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37%…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 개신교 신자 중 84%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동의, 천주교, 불교 신자 대비 높아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전체의 37%로 1년 전과 비교하면 3%포인트 높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중 종교가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한 사람은 66%이지만, 믿는 종교가 없는 사람 중에서는 8%만이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종교의 가르침이나 교리 등이 비신자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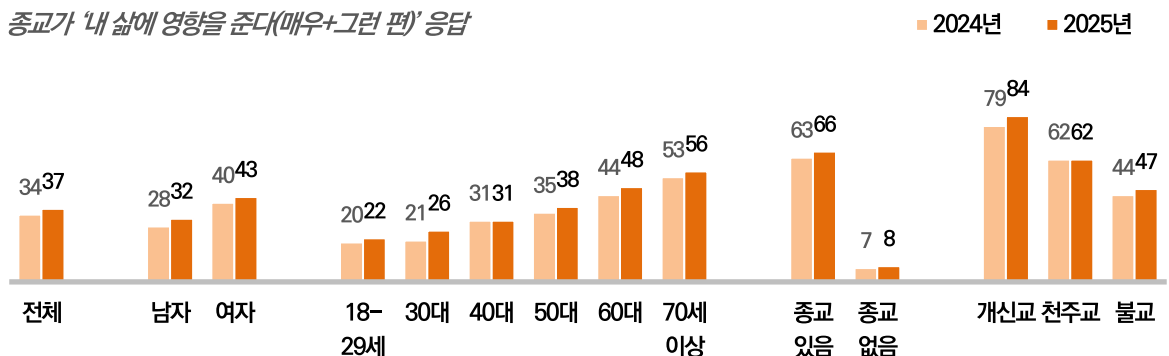
한국리서치가 2025년 1월 ~ 11월 진행한 정기조사를 종합해 추산한 **종교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교 인구도 많다. 종교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확인된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남성(32%)보다는 여성(43%)에게서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18~29세 22%, 70세 이상 56%). 또한 개신교 신자(84%)가 천주교(62%)나 불교(47%) 신자에 비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인정하는 비율이 높다. 종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종교가 내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종교 활동에 더 적극적인 개신교 신자일수록 종교의 영향력을 더 많이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37%… 남성보다는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 개신교 신자 중에서는 84%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 동의, 천주교(62%), 불교(47%)대비 높아

(단위 : %)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매우+그런 편)’ 응답



질문 : 종교가 귀하에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응답자 수 :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종교의 효능감

종교를 믿는 것,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 된다는 인식

안정감, 긍정적인 감정, 윤리적 행동, 인간관계, 소속감 등에 종교가 도움 된다는 의견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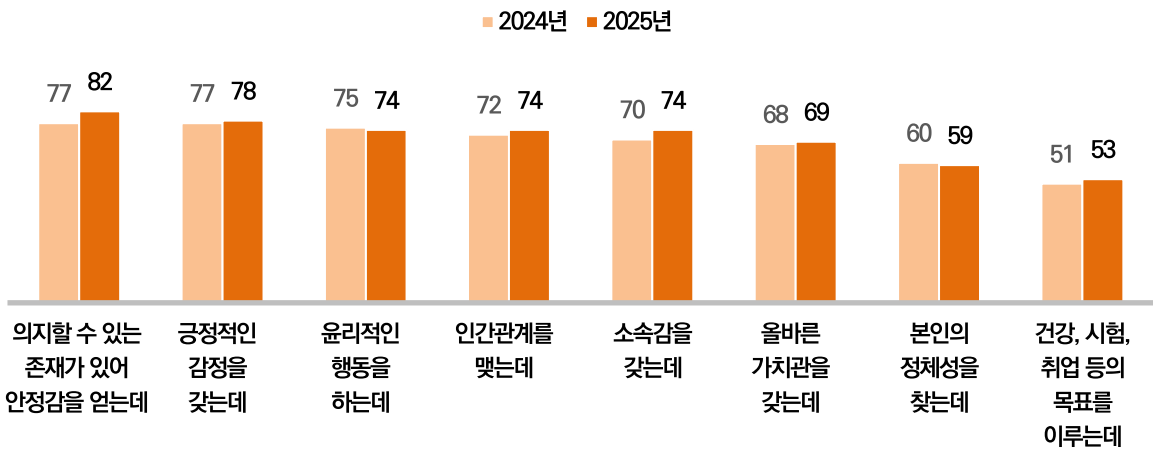
종교를 믿는 것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높다. 종교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2%로 가장 높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데(78%)',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데(74%)', '인간관계를 맺는 데(74%)', '소속감을 갖는 데(74%)' 에도 4명 중 3명 정도가 도움 된다는 인식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데(69%)', '정체성을 찾는 데(59%)', '건강·시험·취업 등 목표를 이루는 데(53%)' 에도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과반에 달한다.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결과로, 종교의 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유지되고 있다.

고령층일수록 종교의 효능감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신자의 비율도 높아지는 것과](#) 이어지는 결과이다. 70세 이상은 8개 항목 중 '목표 달성'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최소 74% 이상이다. 반면 18~29세는 종교가 '정체성(49%)', '목표 달성(40%)'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50%를 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종교가 '소속감'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1%로 높아, 종교가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교를 믿는 것,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 된다는 인식

안정감, 긍정적인 감정, 윤리적 행동, 인간관계, 소속감 등에 종교가 도움 된다는 의견 높아

(단위 : %)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 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응답의 합

응답자 수 : 2024년 조사는 1,000명, 2025년 조사는 2,000명

조사기간 : 2024. 11. 22 ~ 25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령대가 높을수록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 된다는 인식도 높아

18-29세는 종교가 '소속감을 갖는 데' 도움 된다는 의견이 81%로 다른 항목 대비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종교를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매우+그런 편)'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데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데	인간관계를 맺는데	소속감을 갖는데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데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데	건강, 시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루는데
전체 (2,000)	82	78	74	74	74	69	59	53
성별								
남자 (992)	78	75	74	72	71	68	58	48
여자 (1,008)	85	80	74	76	76	70	60	57
연령								
18-29세 (301)	78	74	70	74	81	56	49	40
30대 (299)	79	74	66	71	74	58	45	42
40대 (343)	77	74	71	67	66	68	54	52
50대 (389)	85	77	75	74	73	71	63	57
60대 (354)	84	80	78	78	74	75	68	60
70세 이상 (314)	86	86	85	80	76	83	74	64
성별 x 연령								
남자_18-29세 (156)	75	74	75	76	79	62	54	40
여자_18-29세 (145)	81	74	64	72	83	49	43	41
남자_30대 (157)	78	74	71	70	74	58	46	40
여자_30대 (142)	80	74	61	72	73	59	45	44
남자_40대 (174)	74	72	68	64	65	65	52	48
여자_40대 (169)	79	77	73	70	66	71	56	56
남자_50대 (197)	79	73	72	70	71	68	62	51
여자_50대 (192)	91	81	78	78	75	74	64	62
남자_60대 (175)	80	78	79	78	71	75	68	54
여자_60대 (179)	88	82	77	79	77	75	68	65
남자_70세 이상 (133)	82	82	82	74	70	77	66	56
여자_70세 이상 (181)	89	89	86	84	81	86	79	70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 '도움이 된다(매우+그런 편)'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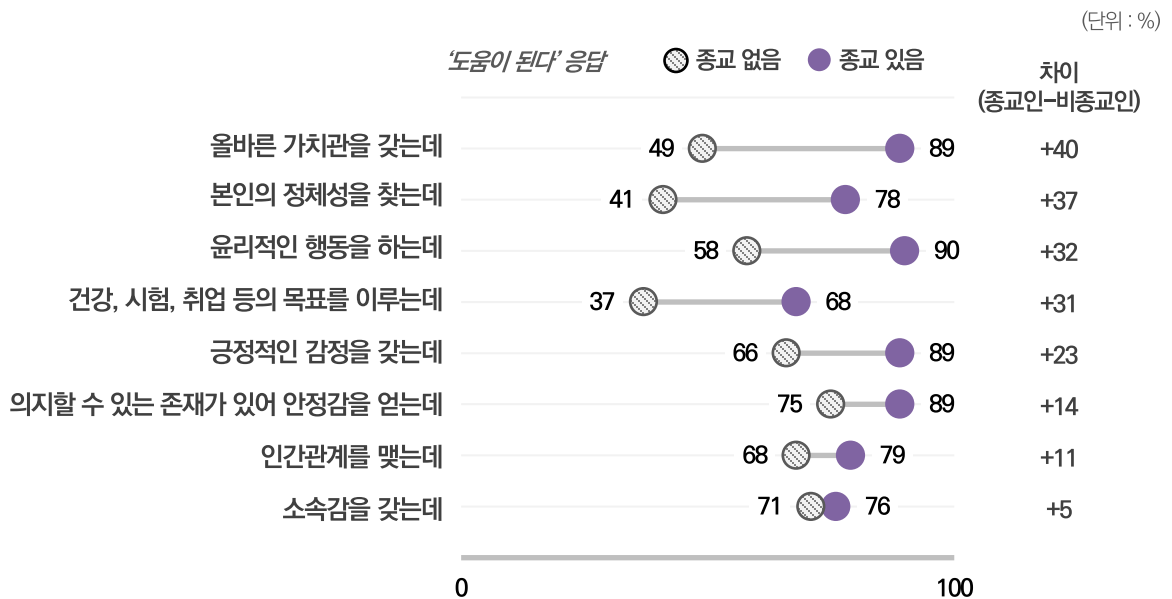
응답자 수 : 2,000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 효능감 높아 소속감, 인간관계 등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신자와 비신자 의견 비슷

신자와 비신자 간 종교 효능감 인식 차이는 뚜렷하다. 특히 '올바른 가치관'(신자 89%, 비신자 49%), '정체성'(78%, 41%), '윤리적 행동'(90%, 58%), '목표 달성'(68%, 37%)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3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인다. 반면 '소속감'(76%, 71%)과 '인간관계'(79%, 68%)에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비신자도 다수가 인정해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다. 종교의 내면적·규범적 기능에 대해서는 신자와 비신자의 인식 차이가 크지만,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믿는 종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비해 종교 효능감 높아 소속감, 인간관계 등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신자와 비신자 의견 비슷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도움이 된다(매우+그런 편)' 응답

응답자 수: 종교가 있는 사람 998명, 종교가 없는 사람 1,002명

조사기간: 2025. 11. 21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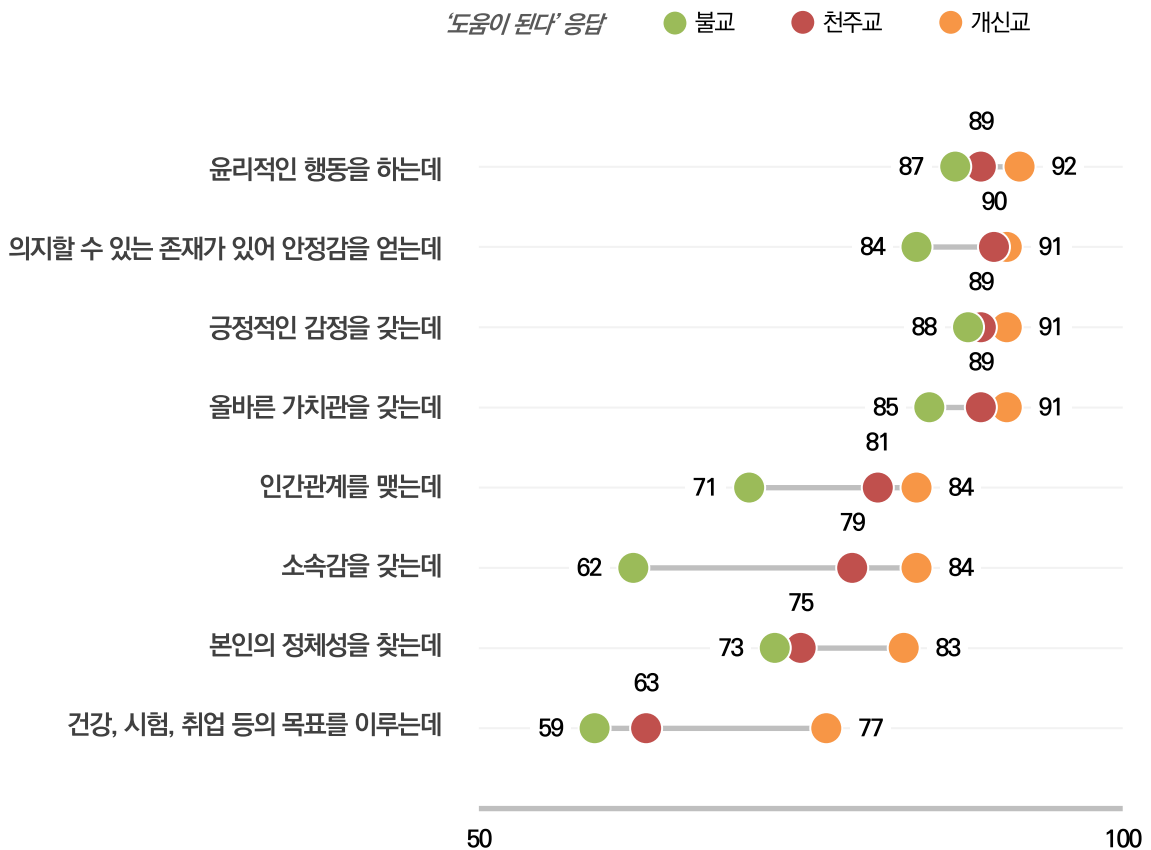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개신교 신자의 종교 효능감이 가장 높고, 불교 신자의 효능감은 낮은 편 윤리적 행동, 긍정적 감정 등 내면적 효능감은 종교 관계없이 다수가 동의하나 목표 달성, 소속감, 인간관계 등은 불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간 인식차이 있어

종교별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개신교 신자의 효능감이 가장 높고, 불교 신자가 상대적으로 낮다. 개신교 신자는 8개 항목 중 '목표 달성'을 제외한 7개 항목에서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특히 '윤리적 행동', '안정감', '긍정적 감정', '가치관' 항목은 모두 91~92%에 달했다. 천주교 신자도 대부분 항목에서 개신교와 유사한 수준이나, '정체성(75%)'과 '목표 달성(63%)'에 도움 된다는 인식은 다소 낮다. 불교 신자는 '안정감',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가치관' 등 내면적 항목에서는 80% 이상이 동의했지만, '소속감(62%)'과 '목표 달성(59%)'처럼 공동체적·기복적 기능에 대한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정체성(73%)'과 '인간관계(71%)'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또한 개신교 신자 대비 낮다.

개신교 신자의 종교 효능감이 가장 높고, 불교 신자의 효능감은 낮은 편 윤리적 행동, 긍정적 감정 등 내면적 효능감은 종교 관계없이 다수가 동의하나 목표 달성, 소속감, 인간관계 등 공동체적·기복적 기능은 불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 간 인식차이 있어

(단위 : %)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도움이 된다(매우+그런 편)' 응답

응답자 수: 개신교 신자 407명, 천주교 신자 254명, 불교 신자 302명

조사기간: 2025. 11. 21 ~ 26

종교 활동 참여 빈도 높을수록 종교 효능감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

종교 활동 빈도 적은 사람도 윤리적 행동, 긍정적인 감정 등에 종교가 도움 된다는 점 인정

종교 활동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종교의 효능감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매주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신자는 8개 항목 모두에서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이 85%를 넘으며, 특히 '윤리적 행동', '긍정적 감정', '가치관', '안정감'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4 ~ 95%에 달한다. 월 1~3회 참여자도 대부분 항목에서 76~91%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월 1회 미만 참여자는 '목표 달성(54%)', '소속감(61%)', '정체성(66%)'에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낮다. 특히 '목표 달성'과 '소속감' 등은 매주 참여자와 월 1회 미만 참여자 간 차이가 각각 31%포인트, 30%포인트에 이른다. 반면 '안정감(84%)', '긍정적 감정(85%)', '윤리적 행동(85%)' 등 내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활동 빈도가 낮아도 종교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 종교의 공동체적·기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내면적·정서적 기능에 대한 인식은 종교 활동 참여에 따른 차이가 없이 비슷하다.

종교 활동 참여 빈도 높을수록 종교 효능감 높아지는 경향도 뚜렷

종교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윤리적 행동, 긍정적인 감정 등에 종교가 도움 된다는 점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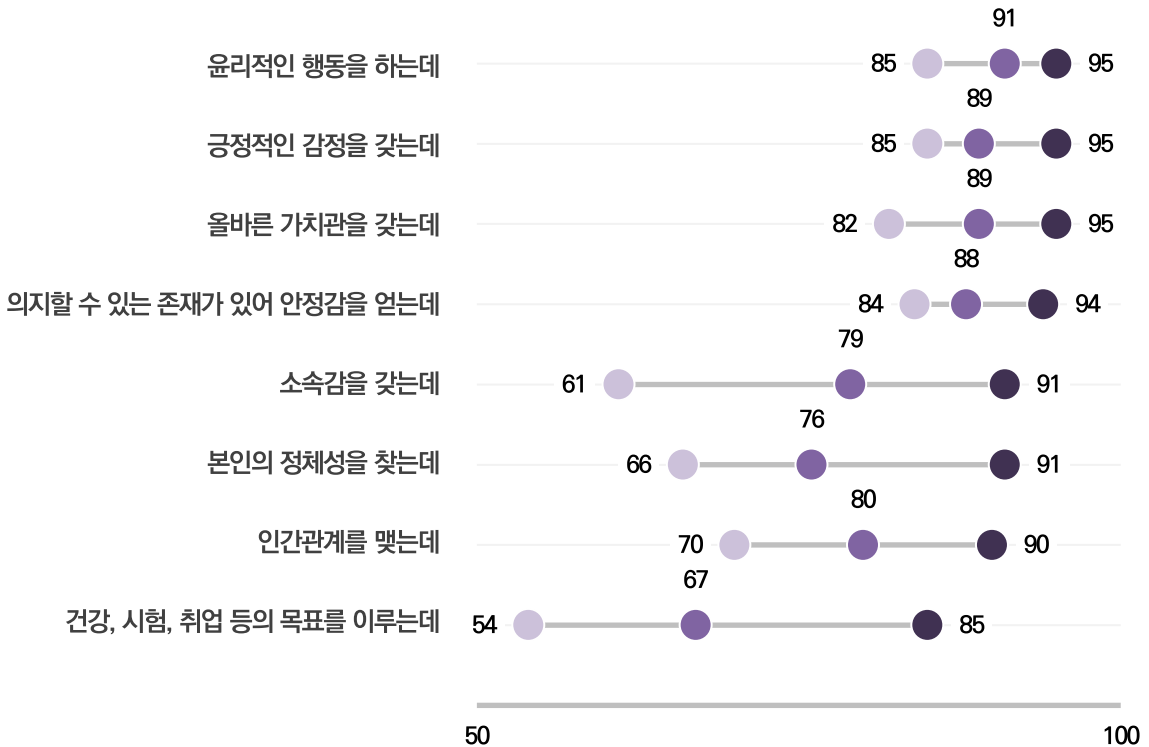
(단위 : %)

'도움이 된다' 응답

● 매주 참여

● 월 1~3회 참여

● 월 1회 미만 혹은 전혀 참여 안함



질문 : 종교를 믿는 것이 다음 각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 '도움이 된다(매우+그런 편)' 응답

응답자 수 : 종교가 있는 사람 998명. 종교활동 매주 참여 369명, 월 1~3회 참여 227명, 월 1회 미만 혹은 전혀 참여 안함 402명

조사기간 : 2025. 11. 21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종교의 효능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양상은 연령대 외에도 신앙 유무, 종교 종류, 활동 빈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신자와 비신자 간에는 '가치관', '정체성', '윤리적 행동' 등 내면적·규범적 기능에서 인식 격차가 크다. 종교별로는 개신교 신자의 효능감이 가장 높으며, 불교 신자는 특히 공동체적 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활동 빈도별로는 참여가 적을수록 '소속감', '목표 달성' 등 공동체적·기복적 기능에 대한 동의율이 뚜렷이 낮아지는 반면, '안정감', '긍정적 감정' 같은 정서적 기능은 비교적 높게 유지된다.

종교가 주는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위안에 대해서는 신자·비신자, 종교·활동 빈도를 불문하고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이나 소속감·인간관계 같은 기복적·관계적 영역에서는 믿는 종교 및 종교 활동 참여도에 따라 인식이 크게 갈린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10월 기준 약 97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2,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2\%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9,849명, 조사참여 3,789명, 조사완료 2,000명 (요청대비 2.9%, 참여대비 52.8%)
조사일시	• 2025년 11월 21일 ~ 11월 2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